

광양시-오스트리아 린츠시 교류협력 강화

경제·문화·예술·교육·관광 등 공동 번영 협정 체결

금호동 인공폭포 앞 도로명 명에 ‘린츠 도로’ 지정

광양시가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Linz)시와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 락히 호텔에서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경제·문화·예술·교육·관광 등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린츠시와 1991년 국제자

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이어온 성과로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양 도시간 공동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린츠시 대표단은 클라우스 루게르 린츠시장을 단장으로 린츠시 재무소득국장과 부르크너하우스 총감독, 린츠시 경제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돼 2박3일간

광양에 머물렀다.

방문 기간 린츠시장 일행은 정현복 광양시장을 예방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주요시설을 살펴봤다. 특히 린츠시 방문단은 광양시 금호동 인공폭포 앞 도로를 명에 ‘린츠 도로’로 지정하는 명에도 로명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락히호텔에서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실질적 교류협정 체결로 양 시는 경제와 문화·예술,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로 다짐했다.

협정 체결식에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와 린츠시는 세계적 수준의 제철소를 보유한 산업도시이자 문화·예술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도시라는 점에서 향후 실질적 교류를 통한 이점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업과 예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라우스 루게르 린츠시장은 “광양시의 잠재력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문이었다”며 “앞으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해 양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고 화답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 락히호텔에서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경제·문화·예술·교육·관광 등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광양시 제공

한편, 린츠시는 오스트리아 북부 다뉴브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9만명의 도시로 연간 조강능력 444만의 포에스트 알파네 제철소가 소재해 있으며 2009년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되는 등 산업과

문화가 고르게 발전한 도시다.

광양시는 향후 ‘창의예술고’(가칭)와 전남도립미술관 등과 연계해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허선식기자



김순호 구례군수가 8일 시장 ‘장터대화’에서 상인들과 소통하며 군정 발전과 활성화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구례군 제공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 5일 시장 ‘장터대화’ 운영

김순호 구례군수가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일 시장 ‘장터대화’를 운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례군은 8일 “열린 혁신행정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이념으로 추진 중인 군민의 삶이 묻어있는 5일 시장에서 ‘장터대화’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터대화’는 5일 시장이 열리는 날(3·8일)에 매월 1회 시장을 방문해 주민여론을 청취한다.

이날 5일 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처음 실시한 ‘장터대화’는 평소 군수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으로 군민의 삶에 활기가 넘치는 5일 시장을 찾아가 주민과 맘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

해 마련됐다. 또한 애로·건의사항 및 군정 발전에 대해 제안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을 이끌어 가는 주체인 군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실천하겠다”며 “소통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군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살기 좋은 도시, 군민 모두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열린 혁신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공감대화 뿐만 아니라, 60개법정리를 방문하는 ‘맘터대화’를 운영해 왔으며 새롭게 5일 시장일인 매달 8일 ‘장터대화’도 운영기로 했다. /구례=이성구기자

구례경찰, 절도 예방순찰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소장 김용주)는 농촌마을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마을을 꼼꼼히 살피는 예방순찰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순찰은 해마다 농번기 철이면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에 낯선 차량이 있으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방문 목적을 물어 사전에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될 경우 파출소에 ‘사전예약순찰’ 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 /구례=이성구기자

광양시, 올해 전기車 민간보급 26대 추가 지원

당초 74대→100대로 확대

광양시는 8일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전기 자동차 26대 민간보급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자동차 74대 민간보급을 추진했으며 조기 사업 완료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전기자동차 지원 26대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금액은 고속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천780만원이고 신청 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현대(아이오닉, 코나 ev), 기아(니로 ev), 르노삼성(sm3 z e), BMW (i3 94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다.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https://www.ev.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말 이전부터 광양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관내 법인·단체·기업이며 1대만 지원된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용길 광양시 대기환경팀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세제혜택,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사업의 공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허선식기자

독거노인 치매 조기검진·예방강화 협약

郡·구례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

구례군은 최근 보건료원에서 구례재가사랑 노인복지센터와 독거노인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례재가사랑 노인복지센터에서 활동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치매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거노인의 인지건강 악화가 나타날 경우 재검진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대상자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의심 대상자 접수 시 단계별로 치매검사를 시행하고 치매로 진단받은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조호물품 제공, 사례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추후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구례재가사랑 노인복지센터에 치매 조기검진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남광역치매센터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육 등 기술지원이 있을 때 이를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 상담, 조기검진, 인지재활프로그램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치매상담은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에서 24시간 가능하다. /구례=이성구기자

광양시, 市승격 30주년 시정 아이디어 공모

24일까지 접수…5건 선정 정책화 추진 계획

광양시는 8일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대한민국 대표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 ▲도시 은퇴자 등의 인구 유입 방안 ▲관광객 유입 ▲재정수입 확충 ▲교통·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불

편사항 개선 및 편익증진 등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는 광양시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응모방법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서식을 내려받아 시 홈페이지, 이메일(pdaok@ko rea.kr),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응모된 제안 가운데 우수한 5건을 선정해 시장상 표창과 상금을 수여하고 시정발전과 실현 가능성이 뛰어난 제안은 정책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방기태 광양시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모전을 통해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제안한 멋진 아이디어가 새로운 광양시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담당관실(061-797-2701)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허선식기자

애플비데

물탱크가 없는
직수형 순간온수

3년 안에 고장 나면
수리비를 받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3년

가정의 달 특별 할인 행사

APPLE-848모델 : ~~359,000~~ ▶ 220,000원
APPLE-868모델 : ~~389,000~~ ▶ 240,000원

물탱크가 없는 직수형 순간온수 비데 (3년 무상 A/S)

금호비데 금호월드 3층 308호
구매상담 062-350-8871